



남원의료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 시행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은 지난 20일, 운봉농협 교육관에 서 농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시행하였다.

농촌 왕진버스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복지 접근성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의료지원(영양제 수액, 물리치료), 구강검진, 검안·돌보기 지원 등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 무상 지원하는 종합 복지사업이다.

남원의료원과 농협 남원시지부는 2024년 4월 농촌 왕진버스 사업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 소는 6월 4일에도 농촌 왕진버스를 지리산농협(인월면)과도 연계 시행할 예정이다.

오진규 원장은 “농협과의 연계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내 고령·취약농업인 대상,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경찰서, 경찰동아리 학생 진로·견학 프로그램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최근 정읍경찰서에서 정읍고등학교 경찰동아리 학생 대상으로 경찰서 견학·체력 프로그램과 진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정읍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주관하여 정읍고 경찰동아리 학생(총 20명)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학교폭력 예방법과 경찰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의 꿈과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경찰의 주요 업무에 대한 소개를 듣고, 경찰 진로 교육을 받은 뒤 112종합상황실·과학수사계·경찰사격장 등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지문채취 등 과학수사 기법을 배우고 시뮬레이션 사격과 112 무전 청취를 통해 경찰 업무를 보다 현실감 있게 체험하였다. /정읍=곽대환 기자

김제중앙MJF라이온스클럽, 따뜻한 식사 나눔 봉사

김제시 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김제중앙MJF라이온스클럽(회장 조승진) 주관으로 21일 독거 어르신 40명에게 관내 식당에서 따뜻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사 나눔은 김제중앙MJF라이온스클럽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정성껏 마련한 자리로 클럽 회원들은 어르신들을 직접 맞이하고 배식 및 말벗 봉사에 참여하며 정성을 더했다. 특히 혼자 식사하는 일이 잦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함께 마음의 위로가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생명과학 분야 우수 연구 ‘성공’

정건희 연구원,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한국을 빛낸 사람들’ 선정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는 지난 12일 식품개발팀 정건희 연구원이 생명과학 분야에서 우수 연구 성과를 낸 국내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낸 사람들(한빛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BRIC는 저널인용보고서(JCR) 기준, 피인용 지수 10 이상 또는 분야 상위 3% 이내의 세계적 학술지에 생명과학 관련 논문을 게재한 한국인 연구자를 매년 ‘한빛사’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정 연구원이 참여한 연구논문 ‘Investigating the Three-Stage Vertical Movement of Chlorantraniliprole and Metolachlor, and Their Metabolites in Soil and Rice Plants: A Long-term Lysimeter and Soil Column study(클로란트라닐리프롤과 메톨라클로르 및 그 대사산물의 토양 및 벼 식물 내 3단계 수직 이동에 대한 연구: 장기 라이시미터 및 토양 컬럼 실험)’이 국제 환경과학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인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IF 12.2)에 게재된 데 따른 것이



다.

이번 논문은 국립농업과학원의 이효섭 연구사(교신저자), 노현호 연구사(공동저자), 원광대학교 생명환경학과 최훈 교수(공동저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행됐다.

정건희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팀은 토양 컬럼(column)과 비교란(非攪亂) 라이시미터(lysimeter)를 활용하여 농약의 이동성과 잔류 특성을 장기적으로 관찰했으며, 이를 통해 지하수 오염 및 농산물 내 농약 잔류를 저감 할 수 있는 예측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는 친환경 농업과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정서근 소장은 “최근 환경에 잔류한 농약은 지하수나 하천수 등 생태계에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는 청정 임실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식품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본격적인 자살예방 활동 추진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자살위험이 높은 4월~7월을 ‘자살예방 집중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핵심은 자살예방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전면 확대 운영으로, 지난 5월 12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청, 경찰, 복지기관,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읍면동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사, 주민 등이 위기 신호를 포착하여 신속히 전문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망을 촘촘히 구축하였다.

특히, 각 부서, 기관, 단체, 청소년상담센터 등 민간 프로그램과 자원을 통합적 연계로 독거노인과 아동·청소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군에게 즉각적, 실질적 도움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병원, ‘나이팅게일 주간행사’ 성황리 마무리

국제간호사의 날 맞아, 간호의 참뜻 기리고 간호사들의 노고·헌신 격려

전북대학교병원은 간호의 참뜻을 기리며 간호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제2차 나이팅게일 주간행사’를 성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름다운 동행, 행복한 간호’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국제간호사의 날(5월 12일)을 맞아 나이팅게일의 참된 간호정신을 기리고 간호사들의 노고와 헌신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북대병원 간호부의 나눔활동 협력기관인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된 주간행사는 회송체계와 아토피·천식을 홍보하는 부스를 비롯해 △추억의 뽑기 △다트게임 △프로존 △미니 체육대회 △인생네트 등 참여자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가 마련됐다.

특히 아나바다 사랑의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 4,547,600원을 간병비지원으로 기부하고,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전사부스가 운영돼 사랑의 나눔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됐다.

그밖에 간호사들의 사진을 전시하는 사진전을 개최하고 간호사들의 일상 및 의미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상영



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전북대병원 정민희 간호부장은 “행사를 통해 나이팅게일의 참뜻을 기리면서 간호사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전북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자 사랑을 실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진안 안전면 좋은세상만들기위원회, 반찬 나눔봉사

진안군 안전면 좋은세상만들기위원회(위원장 한안종)는 지난 20일 지역 내 장애인 가족 3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은 안전면 좋은세상만들기 사회참여 프로그램 중 하나로 혼자 생활하시고 거동이 불편해 식사 준비가 어려운 장애인 세대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계획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좋은세상만들기 위원 20여명과 장애인 세대 30가구가 참여해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취지에 맞게 진행되었으며, 돼지고기, 두부, 열무김치 등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가정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 백구면 지사협, 취약계층에 밀반찬 지원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강인)가 지난 20일 백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사랑이 쏙~ 영양이 쏙~’ 취약계층 밀반찬 지원 사업을 추진, 총 50세대에 밀반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밀반찬 지원사업은 백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기 힘든 독거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에 협의체 위원들이 정성껏 만든 김치와 불고기, 멸치조림 등의 밀반찬이 지원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며칠 동안 재료준비 및 손질에 정성을 쏟았으며 사업 당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여 사랑을 듬뿍 담은 음식들을 만들어 나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